

推拿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

김민균 · 허동석 · 윤일지 · 오민석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교실

The Study on theses of Chuna (推拿)

Min-Kyun Kim, O.M.D., Dong-Seok Heo, O.M.D., Il-Ji Yoon, O.M.D., Min-Seok Oh, O.M.D.

Dept.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 To research the trend of the study related to Chuna(推拿)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further studies into the Chuna(推拿).

Methods : We reviewed and analyzed all theses published by Korean research institution. And these theses were classified by research institutions, published year, field of study, subject, research methods, thesis types, illness and symptoms.

Results :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his study.

1. Classified by the major field of study, oriental medicine accounted for 59 papers, followed by 18 in physical education and 2 in the science of nursing and medicine.
2. Upon classifying theses according to research method and thesis types, research related to clinical trial accounted for nearly half of all theses. It was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documents.
3. After 1998 deals with the effects of the Chuna on variable illnesses such as: ossified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chronic coccyalgia, entrapment neuropathy, low birth weight infant, Bell's palsy, stress incontinence, paramenia, Parkinson disease, Bertolotti syndrome, TMJ (because of scoliosis) etc.
4. Two most widely cured illnesses using the Chuna therapy are scoliosis and HNP of L-spine.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several clinical tests and casuistics did not include research into Lumbago (including HNP of L-spine), it can be concluded that most of the Chuna therap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Lumbago.

Conclusion : As it can be seen in the above results, the possibility of curing illness through Chuna and the usefulness of Chuna have been shown factually and clinically through various consideration of documents, clinical trial & casuistics. Based upon such facts, it is regarded that further scientific research along with additional clinical approaches involving the Chuna should be performed.

Key word : Chuna, Chiropractic, Manipulation

I. 서론

推拿는 시술자의 손 또는 지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거나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 부위인 체표경혈, 근막압통점 및 척추와 전신관절 등에 적용하

여 인체의 생리, 병리를 조절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거두는 것이다¹⁾. 이것은 手技의 역학적 파동이 일종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인체 내 관련 계통의 조직과 기관을 조절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補虛瀉實, 扶正去邪, 調和陰陽하는 한의학의 기본원리에 부합된다²⁾.

推拿는 이미 3,000여년 전부터 의료행위로 활용되었는데, 『黃帝內經·靈樞』〈病傳〉³⁾의 “黃帝曰 余受九鍼于夫子, 而私覽于諸方, 惑有導引行氣, 喬摩, 灸, 熨, 刺, 炳, 飲藥之一者, 可獨守那, 將盡行之呼 岐伯曰 諸方者, 衆人之方也, 非一人之所盡行也.”의 기록에서 근원을 찾아볼 수 있고, 喬摩·按蹻·按摩·按抃·矯引 등으로 표현 되어 왔으며 推拿라는 명칭은 明代의 龔雲林이 지은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 『小兒推拿秘訣』에 처음 등장하였다⁴⁾.

카이로프랙틱은 1895년 미국에서 Daniel David Palmer가 본격적으로 시술하기 시작 하였고^{5,6)}, 이후 카이로프랙틱 대학에서 교육과정 향상으로 20세기 초 강화된 면허시험과 1925년 만들어진 ‘기초과학 자격시험’에 카이로프랙터가 합격하기 시작하며 사회적인 입지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1974년 전국적인 교육기구인 카이로프랙틱 의학교육위원회가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얻으며 제도권 내에서 발전이 가속화 되었다⁷⁾.

우리나라는 1992년 대한추나학회가 대한한의학회 분과로 성립되면서 다양한 수기법을 흡수하여, 카이로프랙틱 의학의 그것과 유사하면서도 중국 추나 기법을 병용하고 다양한 전공별로 임상적인 부분 이외에도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⁸⁾, 현재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로 거듭나 한의학 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⁹⁾.

이에 저자들은 推拿의 효과 및 적응증에 대한 연구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推拿연구 및 임상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4월까지 국내에 발표된 한의학 분야와 비한의학 분야의 推拿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84편을 분석한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 대상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1986년부터 2006년 4월까지 推拿를 주제로 발표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논문은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 Web site에서 “추나”, “推拿”, “추나요법”, “카이로프랙틱”, “척추교정”, “추나치료”, “Chiropractic”, “Chuna”, “TuiNa” 를 주제로 하여 검색 후 각 도서관에서 원문복사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 1) 연도별 논문 발표 수 및 경향을 알아보았다.
- 2) 소속기관별 논문 발표 수 및 경향을 알아보았다.
- 3) 발표연도에 따른 소속기관별 논문 발표 수를 알아보았다.
- 4) 전공분야별 논문 발표 수 및 발표연도에 따른 경향을 알아보았다
- 5) 한의학분야에 있어 세부전공별 논문 발표 수 및 발표연도에 따른 경향을 알아보았다.
- 6) 연구방법별 논문 발표 수를 알아보았다.
- 7) 발표연도에 따른 연구방법별 경향을 알아보았다.
- 8) 문헌고찰 논문과 임상시험·증례보고 논문으로 대별하여 논문을 발표한 기관의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시기에 따른 연구 경향을 알아보았다.
- 9) 임상시험과 증례보고의 경우 질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推拿치료 대상 질환의 경향성 및 적응증을 알아보았다.

치료기법, 치료 후 호전도 평가방법, 치료결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 10) 치료대상 질환 중 척추만증, 요추간판탈출증, 단순요통과 같은 주된 적응증에 대해서는 진단,

4. 논문 목록

번호	연도	제 목	저자	소속	전 공
1	1986	小兒喘息의推拿療法에 關한 研究 ⁹⁾	정규만	경희대	한의학/한방소아과학
2	1987	운동 상해 중 척추변위에 대한 교정요법의 고찰: Chiropractic을 중심으로 ¹⁰⁾	권재훈	영남대	체육학
3	1991	경추병의 수기요법 ¹¹⁾	박윤희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4	1991	醫宗金鑑 중 正骨心法要旨에 수록된 치료방법에 대한 고찰 ¹²⁾	오민석	대전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5	1991	카이로프랙틱의 개요와 요통치료에서의 응용 ¹³⁾	이명중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6	1992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推拿요법과Chiropractic의 문헌적 고찰 ¹⁴⁾	신민식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7	1992	척추변위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머니플레이션의 고찰 : 태권도 수련생을 중심으로 ¹⁵⁾	이연수	명지대	체육학
8	1992	근골격계의 균형을 위한 수기요법 고찰 ¹⁶⁾	이인선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9	1994	Chiropractic이 허리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¹⁷⁾	신재호	서울대	체육학
10	1994	카이로프랙틱의 현황과 그 전망 ¹⁸⁾	신현대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1	1994	편마비의推拿요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¹⁹⁾	엄재원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2	1994	카이로프랙틱 기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²⁰⁾	이명중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3	1995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 응용되는推拿약물 요법 中 용각교탕을 중심으로 한 임상적 고찰 ²¹⁾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4	1995	경추병의 경근이론과 수기요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²²⁾	오민석	대전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5	1996	추나의 역사적 고찰 ²³⁾	신병철	원광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6	1996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推拿·약물 요법의 기간별 임상치료 효과 ²⁴⁾	최영태	자생한방병원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7	1997	按摩·推拿의 역사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²⁵⁾	김규형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8	1997	推拿요법이 HNP에 의한 요각통에 미치는 영향 ²⁶⁾	송병제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19	1997	推拿요법을 시행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관찰 ²⁷⁾	송윤경	경원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20	1997	推拿치료로 완치된 HIVD 및 만성요통환자의 재발율에 대한 연구 ²⁸⁾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한의학/한방재활의학
21	1997	카이로프랙틱 척추재활에 관한 임상연구 ²⁹⁾	이명중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22	1998	요추 추간판탈출증환자에 대한推拿요법의 임상적 고찰 ³⁰⁾	곽중문	대전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23	1998	推拿 요법 후 악화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³¹⁾	김학선	연세대	의학
24	1998	낙침의 수기요법에 대한 고찰 ³²⁾	류석현	우석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번호	연도	제 목	저자	소속	전 공
25	1998	Chiropractic 이론의 고찰 ³³⁾	소재영	동의대	한의학
26	1998	카이로프랙틱 아탈구에 관한 연구 ³⁴⁾	이명종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27	1998	요각통 환자에 추나요법을 동반한 보존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³⁵⁾	이병렬 김연진	대전대	한의학/침구학
28	1999	推拿療法이 頸項痛에 미치는 臨床的 效果 ³⁶⁾	김기옥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29	1999	한의학 영역에서의 카이로프랙틱의 임상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³⁷⁾	송용선	원광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30	1999	요각통에 대한 추나요법의 임상적 고찰 ³⁸⁾	허수영	대구한의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31	1999	추나요법이 척추 측만증에 미치는 영향 ³⁹⁾	허수영	대구한의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32	1999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견인요법과 추나 신연법의 비교 고찰 ⁴⁰⁾	허수영 박재현	대구한의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33	2000	운동요법과 Chiropractic처치가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의 Cobb's angle에 미치는 영향 ⁴¹⁾	권혁상	한양대	체육학
34	2000	望形體의 변증에 의거한 요각통의 추나요법에 관한 연구 ⁴²⁾	김기호	대구한의대	한의학
35	2000	대체의학으로 본 Chiropratic ⁴³⁾	김대제	경성대	약학
36	2000	요통환자의 치료전, 후 요천추각 변화에 관한 임상적 연구 ⁴⁴⁾	노영현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37	2000	경추 추나치료 후 발생한 뇌졸중 1례 ⁴⁵⁾	이상호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38	2000	추나요법을 시행한 척추전방전위증의 증례 보고 ⁴⁶⁾	허수영	대구한의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39	2000	추나요법을 통한 經亂症(無月經) 치험 증례 ⁴⁷⁾	허수영	대구한의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40	2001	안면신경 마비환자에 있어 발병방향과 축추(제2경추) 치들기의 변위방향과의 상관관계 ⁴⁸⁾	곽중문	대전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41	2001	경추추간판 탈출증환자의 견인요법과 추나요법의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⁴⁹⁾	김상돈	원광대	한의학/ 한방재활의학
42	2001	腰椎間板脫出症患者의 推拿治療效果에 對한 臨床的 考察 ⁵⁰⁾	김수장	자생 한방병원	한의학/한방재활의학
43	2001	카이로프랙틱이 만성 요통환자의 요통 자각도에 미치는 영향 ⁵¹⁾	김태수	부산대	체육학
44	2001	추나요법을 시행한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 30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 ⁵²⁾	신영일	대전대	한의학/침구학
45	2001	經筋推拿의 韓醫學 文獻의 考察 ⁵³⁾	윤종태	경원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46	2001	추나요법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에 미치는 영향 ⁵⁴⁾	이태교	국민대	체육학
47	2001	正骨推拿의 韓醫學文獻의 考察 ⁵⁵⁾	추진석	경원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48	2001	청소년기의 구조적 척추측만증의 추나치료 결과 고찰 ⁵⁶⁾	허수영	대구한의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49	2001	經筋療法을 통한 근원성 신경 포착 증후군의 치료 ⁵⁷⁾	허수영	대구한의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50	2001	導引推拿의 韓醫學文獻의 考察 ⁵⁸⁾	홍서영	경원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번호	연도	제 목	저자	소속	전 공
51	2002	Chiropractic과 스포츠 마사지가 천장관절 Subluxation의 교정에 미치는 효과 ⁵⁹⁾	박찬후	목원대	체육학
52	2002	추나요법으로 치료한 후방종인대 골화증 1예 ⁶⁰⁾	신병철	원광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53	2002	운동요법이 추나교정후 요통 및 척추측만증의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⁶¹⁾	신재훈	경희대	체육학
54	2002	비정상 경추 만곡을 가진 경항통 환자의 추나치료 임상례 ⁶²⁾	이승민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55	2002	요통을 경험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 추나요법 효과 ⁶³⁾	이현주	한양대	간호학
56	2003	원적외선·온열·카이로프랙틱 복합처치가 운동선수의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 ⁶⁴⁾	구현정	동덕여대	체육학
57	2003	요추간판돌출증에 대한 추나수법이 통증 완화에 미치는 효과 ⁶⁵⁾	배상식	고려대	체육학
58	2003	굴곡신연기법만을 사용하여 치료한 Bertolotti 증후군 치험 1례 ⁶⁶⁾	최유석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59	2004	경추 추나를 이용하여 치료한 특별성 결막염 치험 1례 ⁶⁷⁾	강지훈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60	2004	척추측만증의 추나 치료를 통한 Cobb's angle 감소를 나타낸 임상증례보고 ⁶⁸⁾	김 용	자생 한방병원	한의학/한방재활의학
61	2004	굴곡신연기법만으로 호전된 파열형 요추추간판탈출증 치험 1례 ⁶⁹⁾	유 석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62	2004	추나요법 후 악화된 요추추간판 탈출증 1례 ⁷⁰⁾	윤유석	경희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63	2004	카이로프랙틱치료가 만성 요통환자의 가동범위와 통증 정도에 미치는 영향 ⁷¹⁾	이종록	한서대	재활복지학
64	2004	추나 요법을 더한 통합감각자극이 저체중아의 성장 및 母兒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⁷²⁾	장군자	경북대	간호학
65	2004	明清시기 소아추나에 관한 문헌적 고찰 ⁷³⁾	정국훈	경희대	한의학/예방의학
66	2004	척추교정 요법이 요통에 미치는 영향 ⁷⁴⁾	한상철	인천대	체육학
67	2005	추나요법의 경항통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⁷⁵⁾	오세춘	상지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68	2005	기공체조와 수기요법이 척추측만증 여고생들의 자세교정과 운동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⁷⁶⁾	이태훈	계명대	체육학
69	2005	추나수기요법과 자침으로 호전된 만성 미골통 환자 치험 2례 ⁷⁷⁾	강지훈	동국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70	2005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 1례에 대한 증례보고 ⁷⁸⁾	고연석	원광대	한의학/한방재활의학
71	2005	카이로프랙틱 신체교정 관점에서 본 척추측정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⁷⁹⁾	길재호 공병선	경희대	체육학
72	2005	카이로프랙틱 신체교정의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고찰 ⁸⁰⁾	길재호 공병선	경희대	체육학

번호	연도	제 목	저자	소속	전 공
73	2005	파킨슨병, 파킨슨 의증 환자 2례에서 추나치료에 대한 증례보고 ⁸¹⁾	김태수	하나 한방병원	한의학/침구학
74	2005	한국 추나학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중·미·일의 수기요법의 비교를 통해 ⁸²⁾	박종민	대구한의대	한의학
75	2005	추나치료를 병행한 척추측만증을 동반한 약관절장애환자 40례에 대한 임상적 비교 고찰 ⁸³⁾	송민식	대전대	한의학/침구학
76	2005	우리나라의 동서양 척추수기요법 비교 연구 ⁸⁴⁾	심호진	경기대	대체의학
77	2005	골반자세 교정치료가 척추 측만증에 미치는 영향 ⁸⁵⁾	이승도	진주산업대	체육학
78	2005	美容에 관한 足陽明經手技療法 研究 ⁸⁶⁾	전현정	원광대	한의학/한의정보학
79	2005	카이로프랙틱 척추교정이 주변 시야 범위 증가에 미치는 영향 ⁸⁷⁾	정한석	한서대	체육학
80	2005	카이로프랙틱 척추교정이 요추의 신전 및 굴곡 운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⁸⁸⁾	정한석	한서대	체육학
81	2006	기공체조와 신체교정요법이 척추측만증 여고생들의 Cobb's angle과 Moire 영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⁸⁹⁾	박기덕남	서울대	체육학
82	2006	추나수기요법과 자침으로 호전된 복압성 요실금 환자 치험 2례 ⁹⁰⁾	윤문식	자생 한방병원	한의학/한방재활의학
83	2006	요통환자에서 카이로프랙틱 수기치료와 경막외 주사요법의 비교 ⁹¹⁾	장재호	고신대	의학
84	2006	추나요법이 경추만곡 및 통증변화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 ⁹²⁾	최 혁	경희대	한의학/동서의학

Ⅲ. 총괄 및 고찰

推拿는 시술자의 손과 지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거나 보조기기 등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 부위인 체표의 경혈, 근막의 압통점과 척추 및 전신 관절 등을 조작하여 인체의 생리, 병리적 상황을 조절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거두는 것이다¹⁾. 이러한 치료효과는 補虛瀉實, 扶正去邪, 調和陰陽하는 한의학의 기본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手技法의 역학적 파동은 일종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인체 내 深部로 침투하여 관련 계통의 조직과 기관을 조절하여 병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한다²⁾.

推拿를 고대에는 按蹻·按摩·按抓 등으로 불렀

다. 伏羲가 만든 九鍼 중 圓鍼과 鍤鍼이 按摩用으로 사용 되었으며 이를 통해 최초의 鍼 제작 당시에도 按摩가 치료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 도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推拿의 연원을 찾아 볼 수 있으며 馬王堆에서 발굴된 導引圖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볼 수 있다. 총 44쪽인 이 그림에는 사람들이 옷을 입거나 벗고 현대의 기계운동이나 맨손 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五禽戲와 유사한 그림도 있다⁴⁾. 이는 고대의 導引術이 自家按摩와 肢體運動이 결합되어 기혈을 선도 하고 체질을 증강시키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일종의 의료 체조였음을 설명해준다⁵⁾.

推拿는 3,000여년 전의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의료

행위로 활용되었다고 전해지지만, 문헌적으로는 춘추 전국시대의 저서인 『黃帝內經 靈樞·病傳』³⁾의 “黃帝曰 余受九鍼于夫子，而私覽于諸方，惑有導引行氣，喬摩，灸，熨，刺，焫，飲藥之一者，可獨守那，將盡行之呼 岐伯曰 諸方者，衆人之方也，非一人之所盡行也。”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治療八法으로 導引·行氣·喬摩·灸·熨·刺·焫·飲藥을 열거하고 있는데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현대에 와서는 이론적 토대나 임상활용에 있어서 導引과 躡摩를 복합적으로 응용하여 새로운 치료방법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素問·異法方宜論篇』에 “中央者，其地平以濕，天地所以生萬物也衆，其民食雜而不勞，故其病多痿厥寒熱，其治宜導引按蹠，故導引按蹠者，亦從中央出也”라고 기록한 것이나 王冰의 註에 “導引，謂搖筋骨，動支節；按，爲抑按皮肉；蹠，謂捷舉手足”이라고 정의한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推拿의 형성은 先秦兩漢시대부터 喬摩·按蹠·按摩·按抃·矯引 등으로 명명되어졌는데, 이 방법이 동양 문화권에서의 수기의학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의 수사에 엄밀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피부에 按壓 또는 摩擦을 통한 자극을 주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크게 다를 바 없으며, 隋·唐 시대에 접어들어 按摩博士와 按摩專科가 생기는 등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 개념상 서로 통합되게 되었다^{96,97)}.

의학서적인 『肘後備急方』, 『諸病源候論』, 『千金要方』, 『千金翼方』, 『外臺秘要』 등에도 안마에 관련 기재가 상당히 많은데⁹⁸⁾ 이미 소아질병에 按摩의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⁹⁹⁾. 이 당시는 唐代로 활발한 문화교류가 있으므로 인해 推拿가 한국과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姜富素가 지은 『按摩手冊』이 프랑스에 전해졌다¹⁰⁰⁾. 서양의 “마사지(massage)”는 바로 “摩沙”의 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導引이 유럽에 전해진 것에 대한 기록은 조셉 니담의 『중국의 과학과 문명』에 있는데, 여기서 그는

서양체조의 발달이 안마보다는 훨씬 늦음을 주장하고 있다²⁵⁾. 元代에 들어 小兒按摩가 小兒脈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⁸⁾ 이 시기의 의가들은 또 안마가 “解表”하는 작용이 있어 “汗法”으로 인식하였다⁹⁹⁾. “攻邪論”을 주장한 張子和는 『儒門事親』에서 導引, 按摩가 解表法인 汗法으로 쓰인다고 주장하여 按摩에 消散外邪하는 解表作用이 있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였다¹⁰¹⁾. 아울러 整骨방면에 현저한 진보가 있었다. 예컨대 1337년 危亦林이 지은 『世醫得效方』에는 整骨科와 金鐵科를 各一門으로 설정하여¹⁰²⁾, 사지골절과 탈구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腰痛, 息積, 翻胃, 齒痛 등을 안마법으로 치료하고 있다⁹⁸⁾.

추나요법은 明代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소아추나의 발달이고 둘째, 수기법의 대상이 整骨 즉 뼈를 대상으로 삼고 변화되어 가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8,96,99)}. 소아의 驚症을 수기법으로 민간에서 많이 사용되어 소아추나를 ‘놀란 것을 밀어낸다’는 속칭 “推驚”이라 하였으며⁹³⁾, 이전 시기에도 孫思邈 등이 안마를 이용하여 소아를 치료하였으나¹⁰³⁾, 이 시기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²⁵⁾. 최초로 다종의 수기요법을 推拿라 명칭으로 통합 했으며 특히 『小兒推拿方脈活嬰秘旨全書』나 『小兒推拿秘訣』 등의 저작에서 안마를 추나로 모두 개칭하여 문헌상 “안마”라는 명칭이 “추나”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추나로 명명된 전문서가 출현하였으며 성인뿐 아니라 소아추나의 독특한 체계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⁰⁴⁾. 초기 안마요법은 극히 일부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수기법의 종류도 적어서 주로 按法과 摩法 두가지만 常用할뿐이었다. 이후 한의사들은 임상에서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 치료 작용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결국 복합적인 수기법이 출현 하게 되었고, 이후로 推拿는 단순히 推法·拿法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각종 수기법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는 동서양의 수기법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¹⁾.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 推拿療法은 한국, 중국의 추나의학과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의학 그리고 일본의 柔道整復術로 연원을 이어서 내려오며 상호보완 발전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²⁾. 우리나라에 있어서 추나는 1992년 대한추나학회가 대한한의학회 분과로 성립되면서 현재 척추신경추나의학회로 거듭나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한의학의 한 부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치료영역을 넓혀 왔다.

다양한 병증에 있어서 응용이 가능하고 비침습적이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치료효과를 낼 수 있다는 면에서 자연주의로의 회귀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³⁾하는 推拿治療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추나의 효과와 적응증을 살펴 임상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국내에 2006년 4월까지 발표된 한의학 및 비한의 학 분야의 推拿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84편을 수집·분석하였다.

수집된 논문을 대상으로 소속기관별, 연도별, 전공분야 및 세부전공별, 연구방법별로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논문 발표 수 및 전체에 대한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연구방법 및 논문형태별 구분은 문헌고찰, 임상시험, 증례보고 및 상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항목으로 분류 하였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문헌고찰과 임상시험 및 증례보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류하여 복수처리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발표년도에 따른 소속기관별 연구현황과 전공별 연구현황을 분석 했고, 논문형태·연구방법의 연도별 경향성도 아울러 파악했다. 임상시험과 증례보고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의 주제가 되었던 질환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추나 치료의 시간추이에 따른 치료대상 질환의 경향성 유무 및 적응증에 대한 영역 파악을 시도 하였고, 치료대상이 되었던 질환 중 측만증, 요추간판탈출증, 단순요통과 같은 다수 발표·

연구된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 치료기법, 치료 후 호전도 평가방법, 실제 치료 후 결과에 대해 고찰 해보았다.

연도별로는 1986년 정⁹⁾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1987년 권¹⁰⁾의 연구가 있었으며, 1991년 경희대, 대전대, 동국대에서, 1992년 경희대, 명지대에서, 1994년 경희대, 서울대에서, 1995년 대전대, 자생한방병원에서 발표되기 시작한 후 매년 다양한 분야의 기관에서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전체적으로는 1997년 이후에 많은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80.95%), 2003년 3편의 논문만이 발표된 것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1997년 이후에는 추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도에 14편의 최다 논문이 발표된 이후 2006년 계속적인 연구 진행 중이다(Fig. 1).

소속기관별로는 총 30개 기관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경희대가 16편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가 10편, 대구한의대가 9편, 대전대가 7편, 원광대와 자생한방병원이 각각 6편, 경원대가 4편, 한서대가 3편, 한양대가 2편, 경기대, 경북대, 경성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의대, 국민대, 남서울대학교, 동덕여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부산대, 상지대, 서울대,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인천대, 진주산업대, 하나한방병원에서 각각 1편씩 발표하였는데 이를 보면 한의학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위주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I).

전공별로는 한의학에서 59편(70.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육학에서 18편, 의학과 간호학에서 각각 2편, 대체의학, 약학, 재활복지학에서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전공별 연도별로 논문 발표의 경향성을 살펴 본 결과 한의학에서 1986년 이래 1991년부터 꾸준히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1997년부터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고, 체육학에서는 1987년, 1992년, 1994년 세 차례 논문 발표가 있었으나 1999년까지

논문 발표가 중단 되었다가 2000년 이후 활발한 연구가 재개 되었고 2005년 한해에만 6편의 폭발적인 논문발표 증가세를 보여 2000년 이후 추나연구에 있어 한의학과 더불어 추나연구 및 논문 발표 수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II).

또한, 체육학 분야에서 연구된 논문들 대부분은 임상시험 위주의 연구를 많이 진행했고 특히 추나에 대한 연구단계가 아직 미흡한 상태였던 1987년 권¹⁰⁾은 추나의 실제 기술을 소개하고, 추나 교정을 척추 변위자에게 실제 시술하여 경과를 관찰 연구 하였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수기술과 병합하여 연구하면 훌륭한 신체 역학술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가적인 전문기관과 소아 청소년에 대한 척추 조기 검진, 조기 발견을 주장한 바 현대적 의미에 있어 추나치료에 관해 불모지나 다름없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추나 교정치료에 있어 체육학 분야의 다른 연구들인 이¹⁵⁾, 신¹⁷⁾의 연구와 더불어 현대적인 추나연구 초기에 상당히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다.

한의학을 다시 세부전공별로 살펴보면, 한방재활의

학에서 48편(81.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구학에서 4편, 동서의학, 예방의학, 한방소아과학, 한의정보학 전공에서 각각 1편씩 발표되었으며, 한의학 세부전공을 알 수 없는 논문이 3편 있었다(Table III). 한방재활의학 분야에서 추나에 대한 논문발표는 1991년 박¹¹⁾, 오¹²⁾, 이¹³⁾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발표 되고 있으며 추나연구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학의 다른 세부전공에서는 침구학 분야의 4편을 비롯하여 많은 수의 연구발표는 없었으나 2004년 이후 점차 다양한 한의학내 세부전공에서 추나가 연구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 및 논문형태별로 논문을 문헌고찰, 임상시험, 증례보고 및 상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항목으로 분류 하였다. 단, 중복되는 경우에는 문헌고찰과 임상시험 및 증례보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분류하여 복수처리 되지 않도록 하였고, 시간의 추이에 따라 연구방법의 변화양상을 고찰 하였다. 古籍의 고찰, 최신 추나기법의 소개, 기타 문헌을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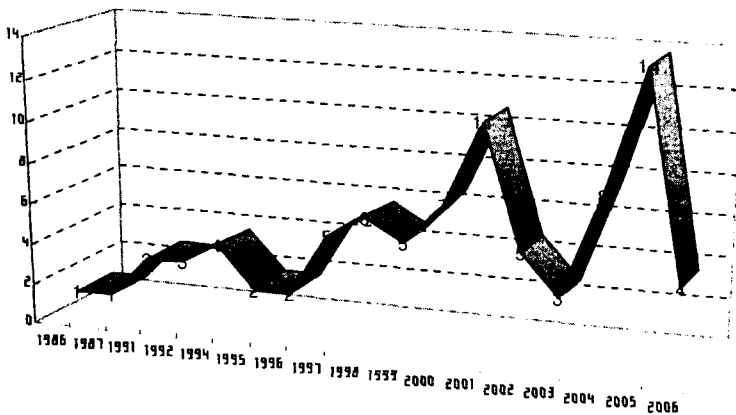


Fig. 1. The trend in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Classified according to a timeline, the theses started to be published after 1986, and since 1991 the number of theses have been increasing?until it reached its peak in 2005.

Table 1. The Number of Theses Published Annually by Research Institutions (Univ. & Hosp.)

Institution	Year																Total	
	'86	'87	'91	'92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Kyunghee	1		1	2	3			1		1	1		1		2	2	1	16
Dongguk			1					2	1		1		1	1	2	1		10
Daegu haany										3	3	2				1		9
Daejeon			1			1			2			2				1		7
Wonkwang							1			1		1				2		6
kyungwon								1				3						4
Donguei									1									1
Sangji																1		1
Woosuk									1									1
Jaseng*						1	1	1				1			1		1	6
Hana**																1		1
Kyonggi																1		1
Kyungpook														1				1
Kyungsung											1							1
Keimyung																1		1
Korea													1					1
Kosin																	1	1
Kookmin												1						1
Namseoul																	1	1
Dongduk Women													1					1
Myungji				1														1
Mokwon													1					1
Pusan												1						1
Seoul					1													1
Yonsei									1									1
Yeungnam		1																1
Incheon														1				1
Jinju																1		1
Hanseo														1	2			3
Hanyang											1			1				2
Total	1	1	3	3	4	2	2	5	6	5	7	11	5	3	8	14	4	84

* Jaseng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 Hana Hospital of oriental medicine

Table II. The Number of Annually Published Theses by Relevant Study Fields

Year \ Study field	'86	'87	'91	'92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Total
Nursing													1		1			2
Alternative Medicine																1		1
Pharmacology											1							1
Medicine									1								1	2
Science of welfare														1				1
Physical education		1		1	1						1	2	2	2	1	6	1	18
Oriental Medicine	1		3	2	3	2	2	4	5	5	5	8	2	1	5	7	2	59
Total	1	1	3	3	4	2	2	4	6	5	7	10	5	3	8	14	4	84

Table III. The Number of Annually These Published by Specific Majors in Oriental Medicine

Year \ Major	'86	'91	'92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Total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3	2	3	2	2	5	3	5	4	8	2	1	4	3	1	48
Acupuncture & Moxibustion Society								1			1				2		4
East-West Medicine																1	1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1			1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1		1
Oriental Pediatrics	1																1
etc.								1		1					1		3
Total	1	3	2	3	2	2	5	5	5	5	9	2	1	5	7	2	59

찰·연구 한 논문을 ‘문헌고찰’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도출해낸 논문들을 ‘임상시험’으로, 특이한 임상경험이나 기타 임상에서 증례보고식의 논문을 ‘증례보고’, 타 문헌과 타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결론으로 도출해낸 논문들도 있어 이 같은 형태의 논문은 문헌논문의 성향은 있으나 타 문헌고찰 논문과 학술적인 면에서 다른 성향을 지닌다고 판단되어 ‘기타’로 분류 하였다. 추나의 특성과 연구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순수 실험논문은 찾기 힘들었고 이 부분은 향후 기전이라든가 체액성분의 변화 등 자연과학 분야의 순수 실험으로 입증하는 연구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별로 구분한 결과 임상시험 방식의 연구는 총 논문 84편 중 41편(48.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헌고찰논문 21편(25.00%), 증례보고 15편(17.86%), 기타 7편으로 나타났다(Table IV).

문헌고찰의 방식으로 연구 되어진 논문은 총 21편(25.00%)으로 최초 1986년 정⁹⁾ 등의 논문을 필두로 1998년까지 활발하다가 이후 2001년과 2005년 각각 3편씩의 논문을 제외하면 현재는 연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헌고찰논문의 경우 明·清代를 거치며 많은 연구와 저작을 남기고 현재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소아추나에 관련된 문헌고찰논문이 눈길을 끈다. 최초 1986년 소아천식과 관련

하여 소아추나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어 거의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있다가 근 20년만인 2004년 정⁷⁾은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시행 했다. 현재 실제 임상에서는 이론의 튼튼한 발판 없이 과거문헌에 의존하거나 경험적으로 시술되고 있는 형편이며 정⁷⁾의 연구에서 소아추나법을 저체중아에게 실시, 경과를 관찰한 임상시험은 소아추나법이 성장발육과 母兒관계 개선에 실효성이 학문적으로 간신히 입증된 상태이다.

추나의 역사는 실로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에 기인하여 발생한 바 그 연원은 실로 오래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현대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고 1992년 이전에는 추나치료가 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간간히 시술 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시술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³⁷⁾. 1992년 척추신경추나 의학회가 대한한의학회 분과로 성립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인 발전을 시작하는 즈음과 때를 같이 하여 추나와 유사하지만 다른 발전 방향성과 짧은 기간 이지만 다양한 노하우와 전문가들이 양성되어 있는 서양에서 도입된 카이로프랙틱과의 실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부분에서 개념의 혼동이 있었으며 추나에 흡수되어 추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카이로프랙틱 테크닉이 추나의 주된 치료가 되어감에 따라 정체성과 향후 추나의 발전방향성이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당시 학문적 상황이 많은 문헌고찰 논문집필 및 연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에 주로 고찰된 내용들은 의종금감¹²⁾, 카이로프랙

Table IV.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Theses by Research Methods

Research Methods	Number of These	Percentage(%)
Clinical Trial	41	48.81
Consideration of Document	21	25.00
Casuistic	15	17.86
etc.	7	8.33
Total	84	100.00%

틱 기법에 대한 외국관련서적^{13,20)}, 經筋理論²²⁾, 문헌을 통한 추나의 역사^{23,25)} 등이다. 문헌논문의 성향들은 순수학문 탐구의 목적과 더불어 추나에 대한 한의 학내에서의 발전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적의식이 어느 정도 엿보인다고 할 수 있고, 1990년대 말부터는 1990년대 초 만큼의 활발한 논문발표는 없다(Fig. 2).

1986년부터 1995년 까지 논문 14편 중 10편이 문헌고찰 논문이며 이 중 6편이 경희대에서 집필 연구되었던 것은 추나 연구의 초기 경향이라 볼 수 있는 문헌고찰 연구는 경희대에 의해 주도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Table V).

임상시험 방식의 연구는 1992년 이¹⁵⁾ 등의 연구를 시작으로 1994년, 1995년, 1996년 매해 한편씩 주로 측만과 요추간판탈출에 대해 임상시험논문이 발표되다가 1997년 증가세를 보이며 2001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질환들은 대개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추나의 적응증이라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질환들에 대한 실효성 검증의 목적을 가지고 측만증^{15,39,41,52,56,61,68,76,85,89)}, 요추간판탈출증^{24,26,27,28,30,40,50,65,69)}, 진단과 무관하게 증상으로는 단순요통^{4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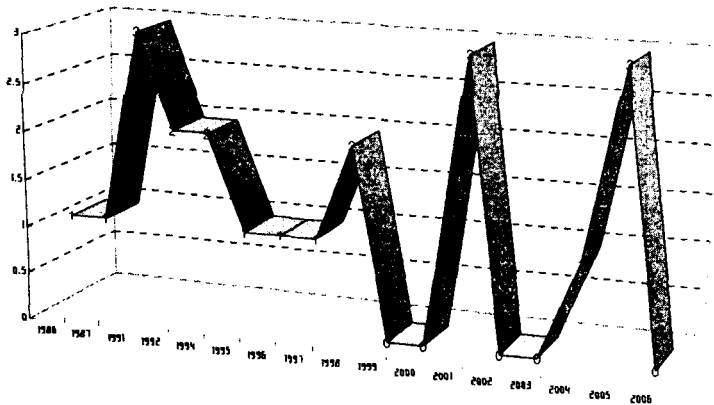


Fig. 2. The trend in consideration of documents research by year ; In the early 1990s when the concept of modern Chuna was first introduced, consideration of documents?accounted for the majority of theses.

Table V. Consideration of Documents Research by Research Institutions(1986~1995)

Research Institutions	Number of These
Kyunghee Univ.	6
Daejeon Univ.	2
Dongguk Univ.	1
Yeungnam Univ.	1
Total	10

59,63,71,74,91), 요각통^{35,38,42,54)}, 항강통^{42,62,75,92)}에 대해 시행되어 졌으며 척추질환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상근·전사각근에 의한 신경포착증후군⁵⁷⁾, 안면마비⁴⁸⁾, 소아추나와 관련하여 저체중아⁷²⁾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다. 그 외에 체육학 분야에 있어서는 신체기능의 향상이라는 측면으로 추나교정과 허리의 유연성¹⁷⁾, 운동선수의 피로회복⁶⁴⁾, 주변시아증가⁸⁷⁾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척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환에 대한 임상시험은 시간의 추이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추나교정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일반적 질환에 대한 실제 임상시험이 다수 진행되어지는 연구동향 속에 후자에 비해 새로운 연구방향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다 하겠다. 이러한 자료 분석결과 임상시험의 경우 어느 정도 문헌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연구되어진 기반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최초 연구 논문이 1986년도에 발표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로 시작되어 10여년이 경과하여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증적인 실제 임상 활용가능성과 실효성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는 다수의 연구 결과에 힘입어 어느 정도 치료영역이 국한되어지며 새로운 추나 치료 영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임상시험이 증가 추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증례보고 방식의 논문은 1998년 김³¹⁾의 추나요법 후 악화된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증례보고 논문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매해 1~4편씩 평균 3편정도 발표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1998년 김³¹⁾ 논문은 추나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이지만 추나치료가 이 당시 얼마나 성행하고 최신훈료로 각광 받았는지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 증례보고 형식을 취한 논문들을 고찰해보면 그 내용은 대개 추나치료의 부작용과 기존 임상시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질환 및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위주로 연구되

었다. 기존 임상시험으로 다루어진 질환 이외에 추나치료의 일반적인 적응증이라고 생각되기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 추나치료 시도는 바람직한 학문의 발전 방향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중에서 눈에 띄는 몇몇 증례보고 논문을 살펴보면 1998년 발표된 김³¹⁾은 추나요법 이후 악화된 HNP에 대해 보고 하였고 2000년 이⁴⁵⁾는 경추교정 후 발생한 뇌졸중에 대해 보고했다. 2000년 허^{49,50)}는 척추전방전위증에 굴곡·신연법으로 호전되었고 골반교정을 통해 무월경을 치료한 증례를 보고했다. 2002년 이⁶²⁾는 비정상적인 경추 만곡(Straightening C-spine)을 지닌 환자에게 경추 추나시술 후 만곡변화 양상에 대해 실제 방사선 촬영을 통해 확인하여 육안적으로 객관적 호전된 증례 보고가 있었다. 2003년은 최⁶⁶⁾는 요추의 천추화과정 중 편측으로만 융합소견을 보이는 Bertolotti 증후군에 대해 증례보고 하였다. 2004년에는 특발성 결막염⁶⁷⁾, 추나 금기로 인식되는 파열형 추간판탈출증⁶⁹⁾과 요추 HNP가 악화된 증례⁷⁰⁾와 추나로 측만치료 후 Cobb's angle을 측정 방사선 소견 상 호전된 증례 보고⁶⁸⁾ 이후 2005년 이후 만성 미골통⁷⁷⁾, 후종인대골화증^{60,78)}, 복잡성요실금⁸⁰⁾, 파킨슨병⁸¹⁾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증례가 보고 되었다. 증례보고 후 연구는 상당히 많은 과제가 남는 셈이다. 향후 증례를 기초로 더 많은 임상시험이 시행 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시험·증례보고는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연구가 활발해지는 경향성이 보인다(Fig. 3).

이러한 경향성은 추나에 대한 문헌적, 이론적, 기술적 고찰 후 실제 임상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며 나타난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겠다.

임상시험·증례보고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기관은 대구한의대로 총 8편의 논문이 발표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경희대, 동국대, 자생한방병원이 각각 6편, 대전대 5편, 원광대 3편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들 기관에서 발표된 임상·증례논문이 총 34편으로 전체 임상·증례논문의 60%를 넘어

이들에 의해 최근 연구 경향(임상시험·증례보고)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VI).

기타로 분류한 7편(8.33%)의 논문은 연구 방식 자체는 문헌고찰의 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연구자의 논조와 결과 도출의 과정, 결과를 고찰해보면 학술적인 성향이 일반문헌 고찰논문과 성향이 다르다고 판단되어 '기타'로 분류했고 나름대로 이 기타로 분류된 논문들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까지 좀 더 집중되어 나타나며 시기적 특성을 내포한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비로소 척추교정치료에 대한 일반인 뿐 아니라 실제 시술자들의 생각,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한의사에 시술되는 추나치료에 대해 그 실효성과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명실 공히 한의학 치료 기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이런 시기에 주로 쓰인 몇몇 논문은 추나 기법의 유용한 장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논문들이 쓰였다. 1998년 이³⁴⁾의 논문에 의하면 1례로써 아탈구라는 카이로프랙틱의 중요개념이 일

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좀 더 쉽고 일반적인 용어들로 바꾸어야 하며 추나치료 방법 뿐 아니라 한의학에 있어서도 그 위상과 요구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환자에게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나 더욱 보다 효과적인 의사전달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9년 송³⁷⁾의 논문에 의하면 전통 한의학의 추나를 틀로 서양의 카이로프랙틱 기술을 흡수하며 추나 전문인으로 양성이 필요함을 카이로프랙틱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와 문헌을 들어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임상약학 김⁴³⁾의 석사논문을 보면 한의학의 틀이 아니라 서양의학의 기준에서 본 대체 의학의 틀로서 국가적인 비용절감과 예방효과 등을 내세워 추나교정 치료의 유효성을 대승적 입장에서 제고하며 이 기법을 환자들에게 가장 접근도 높은 약국의 약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내세워 눈길을 끈다.

연구방법별 연도별 논문 수를 요약해서 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Table VII).

임상시험 및 증례보고에서 다루어진 질환 및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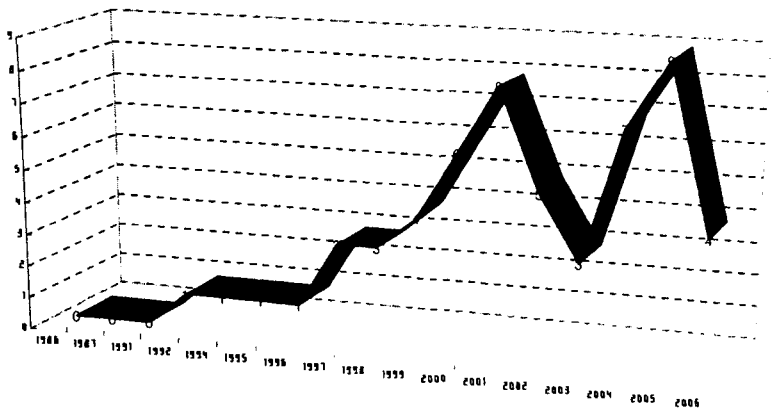


Fig. 3. The trend in clinical trial & casuistics research by year ; Clinical tests began to increase in the mid 90s. Furthermore in the late 90s, casuistics regarding rare and incurable illnesses began to be published.

Table VI. The Number of These Related to Clinical Trials & Casuistics Performed at Research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Number of These
Daegu haany Univ.	8
Kyunghee Univ.	6
Dongguk Univ.	6
Jaseng Hosp. of oriental medicine	6
Daejeon Univ.	5
Wonkwang Univ.	3
Hanseo Univ.	3
Hanyang Univ.	2
Kyungpook Univ.	1
Kyungwon Univ.	1
Keimyung Univ.	1
Korea Univ.1Kosin Univ.	1
Kookmin Univ.	1
Namseoul Univ.	1
Dongduk Women's Univ.	1
Myongji Univ.	1
Mokwon Univ.	1
Pusan Univ.	1
Sangji Univ.	1
Seoul Univ.	1
Yonsei Univ.	1
Incheon Univ.	1
Jinju National Univ.	1
Hana Hosp. of oriental medicine	1
Total	56

Table VII. The Number of Annually Published Theses by Research Methods

Method		Year															Total		
		'86	'87	'91	'92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consideration of documents		1	1	3	2	2	1	1	1	2		3			1	3		21	
clinical trial/	clinical trial				1	1	1	1	3	2	4	3	8	3	2	3	6	3	41
casuistic	casuisti-c	1	3	2	1	4	3	1	1	5									
etc.						1			1	1	1	1					2	7	
Total		1	1	3	3	4	2	2	5	6	5	7	11	5	3	8	14	4	84

을 살펴보면 단일질환으로는 측만증^{15,39,41,52,56,61,68,76,85,89}과 요추간판탈출증^{24,26,27,28,30,40,50,55,69}이 각각 10편(17.86%), 9편(16.07%)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몇몇 임상시험과 증례보고에 있어 다루었던 요추간판탈출을 제외시키지 않았던 이³⁵⁾, 허³⁸⁾, 김⁴²⁾, 이⁵⁴⁾의 요각통에 대한 연구(7.14%)와 방사선 소견 상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단순요통에 대한 연구^{44,51,59,63,71,74,91)}(12.50%)를 합쳐 고려한다면 압도적인 비율(53.57%)로 요추관련 및 요통 치료에 대한 추나 연구·논문발표가 집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발표된 측만증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면 허³⁹⁾는 처음으로 추나를 적용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보고했다. 1999년 이후 측만증에 대한 다른 논문들인 신⁵²⁾, 허⁵⁶⁾, 김⁶⁸⁾의 연구와 체육학분야의 권⁴¹⁾, 신⁶¹⁾, 이⁷⁶⁾, 이⁸⁵⁾, 박⁸⁹⁾의 연구에서 측만치료에 있어 진단방법, 치료기법, 치료결과, 치료평가의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육안적인 視診 및 Moire topography를 이용한 視診과 측진을 비롯하여 단순방사선 촬영(척추의 AP, LAT view)을 활용하여 측만을 진단하였으며 측만의 정도평가는 주로 Cobb's angle이 활용되었다. Nash법을 이용 추체의 회전정도를 평가하여 예후 판단을 하였는데 추체의 회전이 많을수록 호전도는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측만에 주로 사용된 추나기법은 Cox table을 이용한 굴곡-신연기법과 간스테드 기법이었고, 치료결과와 평가에는 초진시의 Cobb's angle을 분모로 하고, 초진시와 치료후의 각도차이를 분자로 하여 백분율을 산출한 교정도(correctability), 시각적상사척도(Visual Analog Scale) 및 Moire topography를 이용하였다. 측만증의 통증은 성인형으로 갈수록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어 통증으로 측만의 정도와 치료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까닭에 시각적 상사척도는 부수적인 수단으로 이용 되었다.

측만증 관련 논문들을 고찰해 보면 측만증의 특징

과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의 치료 결과를 볼 수 있다. 첫째, 여자에서 발병이 조금 더 많았고 둘째, 특발성 측만이 평균 85% 이상이었고 셋째, 흉추부위만 곡은 우측만곡이 많고 이측만곡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으며, 좌측만곡이 우측만곡에 비해 교정도가 좋았다. 넷째, 평균 18회 시술 후 40%의 교정율을 보였고, 다섯째, 측만각이 11°~20°에서 가장 좋은 호전율을 보였으며 여섯째, 척추체의 회전이 증가할수록 교정도는 낮아졌다. 일곱째, Cobb's angle의 변화는 Lumbar angle에서 Thoracic angle보다 더 좋은 호전율을 보였다. 여덟째, 척추의 굴곡·신전·회전·복근강화 운동^{41,61)}, 기공체조^{76,89)} 등의 추가적인 처치를 추나치료에 병행하여 추나치료만을 시행했을 때에 비해 더욱 유의한 수준의 호전율을 보고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호전도에서 허³⁹⁾는 10대에서 교정도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반면, 허⁵⁶⁾는 청소년군에 비해 성인군에서의 교정도와 측만각감소가 우수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임상시험 대상자 수의 적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수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령에 따른 호전도 비교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추나기법 면에서 현재 cox table을 이용한 굴곡-신연기법과 간스테드 기법이 측만증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기법에 대한 연구와 병행치료로써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동적 치료-운동, 체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추간판탈출증의 추나치료 관련 논문은 측만증 다음으로 많은 총 9편^{24,26,27,28,30,40,50,55,69)}의 보고가 있었다. 연구 대상자를 전산화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으로 추간판의 탈출을 확진 받은 환자로 제한하였다. 사용된 치료기기는 auto flexion-distraction이 가능하도록 한 Leander table을 사용한 것이 2례 이고 나머지는 Cox table을 이용하여 굴곡신연기법의 굴곡전환법, 측굴법, 회전기법, 대후두공순환기법을 증상

에 따라 응용하였다. 진단·평가에 요각통 평가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Hudgins의 분류, 시각적상사 척도, 김¹⁰⁶⁾의 통증의 輕重정도 평가도표가 사용되었다.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한 형태변화를 확인하여 평가한 경우도 있었다²⁶⁾.

요각통 평가표를 통해 추나요법을 시행한 결과 모든 연구결과에서 80%이상이 저효(Fair)이상의 치료 성적을 보였다. 요추간판 탈출에 대해 추나치료 시행 후 CT-scan을 통해 형태적 변화를 추적검사 하여 평가한 송²⁶⁾은 유병기간이 6개월 이내 4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연령, 탈출형태가 후방 중심성 탈출인 경우에 형태학적으로 탈출된 추간판의 축소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추나 치료 횟수에 따른 요추간판 탈출증 호전도에 대해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6~15회 까지 시술 후 가장 많은 호전을 보였으며 25회 이상 시술 후에는 호전을 보인 예가 드물었다. 추나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인 경우는 젊은 연령일수록, 병력기간이 6개월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일수록, 치료기간은 길수록 좋았으나 25회 이상의 장기치료에는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추간판 탈출증의 보존적 치료에 대한 효과는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양방에서 김¹⁰⁶⁾ 등은 추간판 탈출증은 환자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78.8%, 유¹⁰⁷⁾ 등은 85.5%에서 Good(양호)이상의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방에서 변¹⁰⁸⁾ 등은 보존적 치료 효과에 대한 유효율을 85.9%로 보았고 bulging type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추간판 탈출의 정도가 적을수록 치료율이 높다고 하였으며, 송¹⁰⁹⁾은 이러한 보존적 치료가 수술적 치료방법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유효율을 가지고 있고, 초기 3주정도의 치료에서 증상의 악화가 수반되지 않고 명백한 수술적 응증만 아니라면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일반적으로 파열된 디스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 1차적으로 수술적인 요법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아 수술적 요법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는 환자에 한해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는게 현실이다¹¹⁰⁾. 유⁶⁹⁾의 파열형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증례보고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단 1례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수술적 요법과 보존적요법의 선택에 있어서 치료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치료성공률의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파열형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 대해서도 심각한 신경학적 문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수술적요법을 고려하기 전 우선 보존적 요법을 시행 하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보고라고 판단된다.

단순 요통의 추나치료 관련 논문은 7편^{44,51,59,63,71,74,91)}이었다. 요통은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명이다. 전 인구의 50%에서 90%정도가 일생에 단 한번은 요통을 경험하게 되며, 그 중 많은 환자가 의사를 방문하기 때문에 요통의 진단과 치료는 항상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¹¹¹⁾. 단순 요통에 대한 치료는 추나 기법만을 시술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요통치료에 전통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혈에 침시술, 물리치료 및 스포츠 마사지, 키네시오 테이핑을 병행 시술 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용된 추나기법은 Zenith table을 이용하여 하지분석에 의한 톰슨 테크닉 위주로 치료한 논문⁴⁴⁾과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종의 수기요법이 사용된 연구들이 혼재되어 치료기법의 일관성은 없었다. 치료결과의 평가에 사용된 지표는 공통적으로 시각적 상사척도(VAS)가 다용 되었고 노⁴⁴⁾, 한⁷⁴⁾의 연구에서는 요천추각의 각도변화 양상으로 요통의 진단 및 치료를 객관화하였다. 나 등¹¹¹⁾은 정상인과 만성 요통 환자에서 요천추각이 각각 $34.5 \pm 11.3^\circ$, $28.3 \pm 9.0^\circ$ 으로 만성 요통환자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노⁴⁴⁾, 한⁷⁴⁾은 평가의 방법에 있어 모두 시각적 상사척도와 요천추각의 변화를 관찰하였는데 두 연구 모두 유의성 있는 시각적 상사척도의 감소와 요천추각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장⁹¹⁾은 Pain Relating Index,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RAND-36 Questionnaire 등을 활용하여 양방에서 보존적 치료로 시술되는 경막 외 주사요법과 대비하여 각 항목에서 대등하거나 또는 우월한 효과를 보고하여 만성요통, 경추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 등의 질환에 광범위하게 치료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과거 의학 분야의 1998년 김³¹⁾의 논문에서 “방사통이 있는 추간판 탈출증은 추나요법 실시 시 효과도 적다고 알려져 있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고 했던 것에 비해 추나에 대한 양의학 분야의 관점변화를 볼 수 있어 상당히 이채롭다. 이⁶³⁾는 치료결과의 평가 방법으로 시각적 상사척도와 더불어 이은옥 등¹¹²⁾이 개발한 통증을 나타내는 91개 어휘를 제시하여 선택하게 하는 ‘국어통증척도’, 이종경¹¹³⁾이 요통환자의 경험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토대로 개발한 일상활동과 가족관계에 대한 12문항의 문제에 ‘매우어려움’에서 ‘전혀어렵지않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측정도구’, 이종경¹¹³⁾이 통증 환자와의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개발한 통증이 심할 때 겪는 심리상태에 대한 10개 문항에 대한 5점 척도를 사용한 ‘우울 측정도구’, 체전굴·후굴측정기를 이용한 ‘유연성평가’ 등 요통의 진단·평가에 있어 다종의 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추나요법 후 요통을 평가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요통의 진단과 평가는 항상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으며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객관적인 검사는 방사선학적인 검사이다. 하지만 방사선학적인 소견만을 찾음으로 요통환자를 평가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고¹¹⁴⁾, 추적관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요천추간 변화와 같은 방사선학적 parameter를 통해 요통의 진단 및 치료 후 평가에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다양한 parameter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사용되는 요통에 대한 다종의 측정도구들의 표준화 및 통합

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나 단독치료 및 타 치료법과의 병행치료, 타 보존적 치료법 각각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1998년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증례보고 논문들은 현재 별다른 치료법이 없고 있더라도 현재의 치료방식이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 않은 후종인대골화증¹¹⁵⁾뿐만 아니라 만성미골통⁷⁷⁾, 신경포착증후군⁵⁷⁾, 신생아저체중⁷²⁾, 안면신경마비⁴⁸⁾, 복압성요실금⁹⁰⁾, 월경곤란⁴⁷⁾, 파킨슨병⁸¹⁾, Bertolotti증후군⁶⁶⁾, 측만으로 유발된 TMJ⁸³⁾ 등의 다양한 질환에 있어 추나치료의 양호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안면신경마비의 방향과 축추의 치돌기의 변위방향에 상관성에 대한 광⁴⁸⁾의 임상고찰의 경우 별다른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을 비롯 질환·증상자체로도 보기 힘들거나 근거가 어려운 질환들이라 있어 사뭇 눈길을 끈다.

그 이외에 추나치료 후 신체기능이 향상된 실험결과를 보여준 체육학 계열의 논문 4편^{17,64,80,87)}이 있으며 요추 추나치료 후 발생한 HNP 악화^{31,70)}와 경추 추나 치료 후 뇌졸중이 발생한 보고⁴⁵⁾와 같은 추나치료의 부작용에 대한 보고논문도 있다. 이들 추나치료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현방지 및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경추부위의 해부학적 구조상 혈관 및 연부조직 손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정확하고 세심한 시술이 요구된다.

또한 1992년 척추변위에 대한 수기요법의 고찰 연구¹⁵⁾를 필두로 사실상 1995년 이후부터 임상증상에 대한 실험논문 및 증례보고가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측만증, 요추간판탈출증, 단순요통 과 요각통 등 허리관련 질환·증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경추 추간판 탈출에 대한 임상·증례 논문은 2001년 단 1편⁴⁹⁾ 발표되었고 구조적 변위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경향통에 대한 논문 4

편이 있어 경추 부위의 연구가 요추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VIII).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나에 관한 연구논문의 발표는 1986년도에 소아천식에 사용한 추나치료를 문헌고찰한 논문으로 첫 발표가 있는 후 한방재활

의학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기관 및 전공에서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발표되고 있다. 1991년도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0년대 초반에는古문헌 및 추나 이론에 대한 고찰위주의 연구가 경희대를 주축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임

Table VIII. The Number of Theses by Symptoms and Illnesses Organized by Year

Symptom / Illness	'86	'87	'91	'92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Total
Scoliosis				1						1	1	2	1		1	2	1	10
HNP of L spine							1	3	1	1		1		1	1			9
Low back pain											1	1	2		2		1	7
Sciatica									1	1	1	1						4
Neck pain										1			1			1	1	4
Functional elevation of the body					1									1		2		4
Side effect									1		1				1			3
OPLL*													1			1		2
chronic coccyalgia																1		1
Spondylosis						1												1
Spondylolisthesis											1							1
Bertolotti syndrome														1				1
entrapment neuropathy												1						1
low birth weight infant															1			1
Bell' s palsy												1						1
stress incontinenace																	1	1
paramenia											1							1
Idiopathic conjunctivitis															1			1
Parkinson disease																1		1
TMJ disorder																1		1
HNP of C spine												1						1
Total				1	1	1	1	3	3	4	6	8	5	3	7	9	4	56

* 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상시험 및 증례보고 논문 위주의 연구가 대구한의대를 비롯하여 경희대, 동국대, 자생한방병원, 대전대, 원광대를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공분야별로는 한의학계에서 70.24%의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체육학계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21.43%)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간호학, 의학계열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주로 한방재활의학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연구의 경향을 연구방법으로 살펴보면, 추나가 처음 도입되던 1990년대 초반에는 주로 문헌고찰이 많았고,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임상시험이 많아져 현재도 여전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부작용 및 특이한 질환 위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증례보고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추나에 관한 논문은 연구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아 대부분이 임상논문과 문헌논문이며 순수자연과학적 실험실적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주로 추나를 통해 치료하고자 하고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환 및 증상은 대부분 측만증, 요추간판탈출증, 단순요통, 요각통 등의 요추에 대한 내용이었고 경추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가 행해졌다.

이상을 총괄 해보면 84편의 논문을 통하여 추나의 임상적 유효성과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접근의 가능성이 보여 지며, 향후로는 실험실에서 행해질 수 있는 자연과학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추나의 연구 동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표된 추나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 논문 84편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기별로는 1986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고, 199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05년도에

최다논문이 발표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 소속기관별로는 경희대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동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원광대 순이었다.
3. 전공분야별로는 한의학 59편, 체육학 18편, 의학, 간호학 각각 2편 순이었다.
4. 전공분야의 연도별 연구 경향에서는 한의학은 1991년, 체육학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오고 있다.
5. 한의학 분야의 논문으로는 한방재활의학 전공이 46편으로 가장 많았다.
6.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임상시험 방식의 연구(41편)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문헌논문(21편) 이었다.
7. 1990년대 초반에는 문헌고찰이 많았는데 경희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임상시험이 많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는데 대구한의대, 경희대, 동국대, 자생한방병원, 대전대가 경향성을 주도했다.
8. 1998년도 이후 발표된 연구들은 후종인대골화증, 만성미골통, 신경포착증후군, 신생아저체중, 안면신경마비, 복합성요실금, 월경곤란, 파킨슨병, Bertolotti증후군, 측만으로 유발된 TMJ disorder등 주제가 다양화되었다.
9. 임상시험 및 증례보고에서 단일질환으로는 측만증과 요추간판탈출증이 각각 10편, 9편으로 가

장 많았다.

- 1) 측만증의 진단 및 평가에는 육안적 視診, Moire topography, 촉진, 방사선 촬영, Cobb's angle, Nash 기법을 이용하였고, 주로 사용된 기법은 Cox table을 이용한 굴곡-신연기법과 간스테드 기법이었다. 측만증은 좌측만곡이 우측만곡에 비해 교정도가 좋았고, 평균 18회 시술 후 40%의 교정율을 보였으며 측만각이 11°~20°에서 가장 좋은 호전율을 보였다.
- 2) 요추추간판 탈출의 치료에는 auto flexion-distraction이 가능하도록 한 Leander table을 사용한 것이 2례였고 나머지는 Cox table을 이용하여 굴곡신연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진단·평가에는 요각통 평가표, Hudgins의 분류, 시각적 상사척도, 통증의 輕重정도평가가 사용 되었다. 추나를 시행한 결과 모든 연구결과에서 80%이상이 저효(Fair) 이상의 성적을 보였으며 좋은 결과를 보인 경우는 젊은 연령, 6개월 이내의 병력기간, 6~15회 이었고 치료기간은 길수록 좋았으나 25회 이상의 장기치료에는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 3) 단순 요통의 추나치료는 침시술과 물리치료 및 스포츠 마사지, 키네시오 테이핑을 병행 시술하여 유효하였다. 사용된 추나기법은 Zenith table을 이용한 톱슨 테크닉과 다종의 수기요법이 사용되었다. 진단·평가에 시각적 상사척도 (VAS), 요천추각의 각도변화 양상, Pain Relating Index(PRI), Short-Form MCGill Pain Questionnaire(MPQ), RAND-36 Questionnaire, 국어통증척도, 일상생활의 어려움 측정도구, 우울 측정도구, 체전굴·후굴 측정평가 등의 측정도구가 사용되었다.
- 4) 경추 추간판 탈출에 대해서는 2001년 1편 발표되었고, 구조적 변위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 경향통에 대해서는 4편 이었는바 경추 부위의 연

구가 요추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 5) 신체기능의 향상에 대해서는 시야확장, 피로회복, 유연성, 미용효과 및 건강증진 등이 있었다.

참고문헌

1. 신준식. 한국추나학 임상 표준지침서. 서울:대한추나학회출판사. 2001:7-12, 13, 14.
2. 余大方. 推拿學(供鍼灸專業用). 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4:40-56, 58, 171-210.
3. 查煒. 推拿名實考. 中醫文獻雜誌. 1998: 1(1):13-14.
4.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재활의학. 서울:군자출판사. 2005:246-7.
5. 오춘수. 척추 그 100가지 질병의 근원. 서울:푸른술. 1997:49-53, 59, 62, 171-3.
6. Palmer DD : The chiropractor's Adjuster : A Text of the science, Art and Phylosophy of Chiropractic for Student and Practitioners, Portland, OR, Portland printing house, 1910:2.
7. Keating JC, Mootz RD : The influence of political medicine on chiropractic dogma :implications for scientific development. J Manipulative Physiol Ther, 1989;12(5):393-8.
8. 임준규, 신현대. 동의물리요법과학. 서울:고문사. 1990:56-61.
9. 정규만, 조종관. 소아천식의 추나요법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986;7(1):155-9.
10. 권재훈. 운동상해중 척추변위에 대한 교정요법의 고찰: Chiropractic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7.
11. 박윤희. 경추병의 수기요법. 한방재활의학회지.

- 1991;1(1):45-9.
12. 오민석. 醫宗金鑑 중 正骨心法要旨에 수록된 치료방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1;1(1):79-91.
 13. 이명중. 카이로프랙틱의 개요와 요통치료에서의 응용. 한방재활의학회지. 1991;1(1):51-8.
 14. 신민식.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나요법과 CHIROPRACTIC의 문헌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2;2(1):127-39.
 15. 이연수. 척추변위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머니폴레이션의 고찰. 명지대학교대학원. 1992.
 16. 이인선. 근골격계의 균형을 위한 수기요법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2;2(1):197-208.
 17. 신재호. Chiropractic이 허리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1994.
 18. 이명중. 카이로프랙틱의 현황과 그 전망. 한방재활의학회지. 1994;4(1):207-19.
 19. 엄재원. 편마비의 추나요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4;4(1):191-202.
 20. 이명중. 카이로프랙틱 기법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4;4(1):159-74.
 21. 신준식. 척추관절 질환 치료에 응용되는 추나·약물 요법 중 용각교당을 중심으로 한 임상적 고찰. 한국한의학회지. 1995;1(1):289-319.
 22. 오민석. 경추병의 경근이론과 수기요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한방재활의학회지. 1995;5(1):329-45.
 23. 신병철. 추나의 역사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6;6(1):445-63.
 24. 최영태.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추나·약물 요법의 기간별 임상치료 효과. 한국한의학회지. 1996;107-25.
 25. 김규형. 按摩,推拿의 역사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7;7(1):382-406.
 26. 송병제. 추나요법이 HNP에 의한 요각통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7.
 27. 송윤경. 추나요법을 시행한 요추 추간판 탈출증환자에 대한 임상적 관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7;7(2):84-96.
 28. 신준식. 추나치료로 완치된 HIVD 및 만성요통환자의 재발율에 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지. 1997;3(1):321-33.
 29. 이명중. 카이로프랙틱 척추재활에 관한 임상연구. 한방재활의학회지. 1997;7(1):263-71.
 30. 광중문. 요추 추간판탈출증환자에 대한 추나요법의 임상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1998;6(2):669-77.
 31. 김학선. 추나 요법후 악화된 요추추간판탈출증. 대한정형외과학회지. 1998;33(5):1326-33.
 32. 류석현. 낙침의 수기요법에 대한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8;8(2):347-57.
 33. 소재영. Chiropractic 이론의 고찰. 동의대학교 대학원. 1998.
 34. 이명중. 카이로프랙틱 아탈구에 관한 연구. 한방재활의학회지. 1998;8(1):57-63.
 35. 이병렬, 김연진. 요각통 환자에 추나요법을 동반한 보존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전대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8;6(2):649-58.
 36. 김기욱. 推拿療法이 頸項痛에 미치는 臨床的 效果. 경희대학교대학원. 1999.
 37. 송용선. 한의학 영역에서의 카이로프랙틱의 임상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방재활의학회지. 1999;9(2):264-78.
 38. 허수영. 요각통에 대한 추나요법의 임상적 고찰.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동서의학. 1999;24(1):14-27.
 39. 허수영. 추나요법이 척추 측만증에 미치는 영향. 한방재활의학회지. 1999;9(1):12-23.
 40. 허수영, 박재현. 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견인

- 요법과 추나신연법의 비교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9;9(1):1-11.
41. 권혁상. 운동요법과 Chiropractic처치가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의 Cobb's angle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대학원. 2000.
 42. 김기호. 望形體의 변증에 의거한 요각통의 추나요법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2000.
 43. 김대제. 대체의학으로 본 Chiropractic. 경성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2000.
 44. 노영현. 요통환자의 치료전·후 요천추각 변화에 관한 임상적 연구. 한방재활의학회지. 2000;10(1):11-21.
 45. 이상호. 경추추나치료후 발생한 뇌졸중1례. 대한한의학회지. 2000;21(4):264-70.
 46. 허수영. 추나요법을 시행한 척추전방전위증 증례보고. 한방재활의학회지. 2000;10(2):9-15.
 47. 허수영. 추나요법을 통한 經亂症(無月經) 치험 증례.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동서의학. 2000;25(2):17-24.
 48. 광중문. 안면신경 마비환자에 있어 발병방향과 축추(제2경추)치돌기의 변위방향과의 상관관계. 한방재활의학회지. 2001;12(4):111-8.
 49. 김상돈. 경추추간판 탈출증환자의 견인요법과 추나요법의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연구. 한방재활의학회지. 2001;12(4):39-48.
 50. 김수장. 腰椎間板脫出症 患者의 推拿治療效果에 對한 臨床的考察. 대한추나학회지. 2001;2(1):93-109.
 51. 김태수. 카이로프랙틱이 만성요통환자의 요통 자각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체육대학원. 2001.
 52. 신영일. 추나요법을 시행한 특발성 척추측만증 환자 30례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1;18(6):27-34.
 53. 윤종태. 經筋推拿의 韓醫學 文獻의 考察. 대한추나학회지. 2001;2(1):13-25.
 54. 이태교. 추나요법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2001.
 55. 추진석. 正骨推拿의 韓醫學 文獻의 考察. 대한추나학회지. 2001;2(1):5-12.
 56. 허수영. 청소년기의 구조적 척추측만증의 추나치료 결과 고찰. 대한추나학회지. 2001;2(1):121-32.
 57. 허수영. 經筋療法을 통한 근원성신경포착증후군의 치료. 대한추나학회지. 2001;2(1):43-50.
 58. 홍서영. 導引推拿의 韓醫學 文獻의 考察. 대한추나학회지. 2001;2(1):27-41.
 59. 박찬후. Chiropractic과 스포츠 마사지가 천장관절 Subluxation의 교정에 미치는 효과. 목원대학교대학원. 2002.
 60. 신병철. 추나요법으로 치료한 후방중인대골화증 1예. 대한추나학회지. 2002;3(1):153-66.
 61. 신재훈. 운동요법이 추나교정후 요통 및 척추측만증의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2002.
 62. 이승민. 비정상 경추 만곡을 가진 경형통 환자의 추나치료 임상례. 한방재활의학회지. 2002;12(4):1-10.
 63. 이현주. 요통을 경험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 추나요법 효과. 한양대학교대학원. 2002.
 64. 구현정. 원적외선·온열·카이로프랙틱 복합처치가 운동선수의 피로회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03;17(2):1-17.
 65. 배상식. 요추간판돌출증에 대한 추나수법이 통증 완화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의용과학대학원. 2003.
 66. 최유석. 굴곡신연기법만을 사용하여 치료한 Bertolotti 증후군 치험 1례. 한방재활의학회지.

- 2003;13(2):143-52.
67. 강지훈. 경추 추나를 이용하여 치료한 특발성 결막염 치험 1례. 대한추나학회지. 2004;5(1):109-16.
 68. 김용. 척추측만증의 추나 치료를 통한 Cobb's angle 감소를 나타낸 임상증례보고. 한방재활의학회지. 2004;14(1):18-27.
 69. 유석. 굴곡신연기법만으로 호전된 파열형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험 1례. 한방재활의학회지. 2004;14(1):144-53.
 70. 윤유석. 추나요법 후 악화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1례. 대한추나학회지. 2004;5(1):163-68.
 71. 이종록.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만성요통환자의 가동범위와 통증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대학원. 2004.
 72. 장군자. 추나 요법을 더한 통합감각자극이 저체중아의 성장 및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간호학대학원. 2004.
 73. 정국훈. 明清시기 소아추나에 관한 문헌적 고찰. 경희대학교대학원. 2004.
 74. 한상철. 척추교정 요법이 요통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대학원. 2004.
 75. 오세춘. 추나요법의 경향통 치료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추나학회지. 2005;6(1):1-9.
 76. 이태훈. 기공체조와 수기요법이 척추측만증 여고생들의 자세교정과 운동능력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대학원. 2005.
 77. 강지훈. 추나수기요법과 자침으로 호전된 만성 미골통 환자 치험 2례. 한방재활의학회지. 2005;15(3):169-76.
 78. 고연석.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1례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추나학회지. 2005;6(1):157-67.
 79. 길재호, 공병선. 카이로프랙틱 신체교정 관점에서 본 척추측정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16(3):813-22.
 80. 길재호, 공병선. 카이로프랙틱 신체교정의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16(3):823-34.
 81. 김태수. 파킨슨병, 파킨슨 의증 환자 2례에서 추나치료에 대한 증례보고. 대한추나학회지. 2005;6(1):127-35.
 82. 박종민. 한국 추나학의 특징과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2005.
 83. 송민식. 추나치료를 병행한 척추측만증을 동반한 약관절 장애환자 40례에 대한 임상적 비교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5;22(5):133-40.
 84. 심호진. 우리나라의 동서양척추수기요법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2005.
 85. 이승도. 골반자세 교정치료가 척추 측만증에 미치는 영향. 진주산업대학교 대학원. 2005.
 86. 전현정. 美容에 관한 足陽明經手技療法 研究. 원광대학교대학원. 2005.
 87. 정한석. 카이로프랙틱 척추교정이 주변 시야 범위 증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16(6):599-604.
 88. 정한석. 카이로프랙틱 척추교정이 요추의 신전 및 굴곡 운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16(3):391-6.
 89. 박기덕. 기공체조와 신체교정요법이 척추측만증 여고생들의 Cobb's angle과 Moire 영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2006;45(3):587-97.
 90. 윤문식. 추나수기요법과 자침으로 호전된 복압성요실금 환자 치험 2례. 한방재활의학회지. 2006;16(1):127-34.
 91. 장재호. 요통 환자에서 카이로프랙틱 수기치료와 경막 외 주사요법의 비교. 고신대학교 의학부 논문집. 2006;21(1):69-75.
 92. 최혁. 추나요법이 경추만곡 및 통증변화에 미치는 임상적 효과. 경희대학교대학원. 2006.

93. 조희성, 광중문. 임마손은 약손 - 소아추나학. 서울:의성당. 1995:15-26,59.
94.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성보사. 2000:513.
95. 傅維康. 鍼灸推拿學史. 서울:의성당. 1993:26, 72, 102.
96. 張恩勤. 中國推拿.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15, 51, 181.
97. 嚴隼陶, 趙毅. 現代中醫藥應用與研究大系. 第17卷 推拿. 上海: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1998:16-7.
98. 張安楨, 武春發. 中醫骨筋科學. 北京市:人民衛生出版社. 1988:1-7.
99. 上海中醫學院. 推拿學. 香港:商務印書館. 1983:1-4.
100. 駱竟洪. 隨法原流. 中華推拿醫學會紙. 1998:4(1):5.
101. 李茂林. 按摩推拿手法萃錦. 북경:인민위생출판사. 1989:1-2.
102. 嚴世藝. 中國學術史. 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43-8.
103. 王恩桂. 小兒鍼椎療法. 北京:中國標準出版社. 1993:3-4.
104. 신준식. 한국추나학. 서울:대한한의학회 추나분과학회 부설출판사. 1995:2,4-12.
105. 劉明彙. 淺談中醫推拿學科建設. 長春中醫學院鍼推拿學院報. 1998:20(1):30.
106. 김근모. 요통에 대한 임상적 고찰. 한방재활의학회지. 1992;2(1):101-15.
107. 김한식. 보존적 치료로 성공하였던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추적관찰. 대한재활의학회지. 1994;18(4):809-16.
108. 유종운. 요추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보존적 치료 후 경과관찰. 대한재활의학회지. 1994;18(3):618-28.
109. 변재영. 요추간판탈출증의 탈출형태별 보존적 치료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98;15(1):55-64.
110. 송봉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98;15(1):55-64.
111. 신민섭. 파열형요추간판탈출증에대한 임상적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1;18(6):84-92.
112. 나영무. 요통 환자에서 척추만곡의 분석. 대한재활의학회지. 1996;20(3):669.
113. 이은옥, 이숙희. 정상성인에서의 한국어휘를 이용한 통증척도의 타당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1986;16(2):1-21.
114. 이종경. 요통환자의 운동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1997.
115. Phillips RB, Frymoyer JW, Mac Pherson BV, Newberg AH. Low back pain:a radiographic enigma, J manipulative Physiol Ther. 1989;9(3):183-7.
116.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서울:최신의학사. 2005:433.